



▷박상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은 9년부터 해외소장 전적 문화재를 조사해 오고 있다.

“고서(古書)들은 우리 문화의 총집결체입니다. 그런 우리 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상국(56)씨의 공식 직함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이다. 그러나 그는 불교서지학자로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의 주도로 시작된 해외 전적 문화재 조사가 벌써 12년째다.

“해외 흠어진 전적 조사 한국 문화사 복원작업”

12년째 해외 우리 고서 조사 박상국 실장

그 동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어 오다 ‘해외소장 전적 문화재 정밀조사비’란 명목으로 3억 원이 내년 문화재청 예산에 책정됐다. 해외에 유출돼 있는 우리 나라 고서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이 작업은 국내 대표적 서지학자인 천해봉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정섭 문화재전문위원 등 3명이 의기투합해 91년 만든 해외전적조사연구회(회장 천해봉)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日궁내청·美의회도서관 등에 3만여건

일본 황실의 보물 창고인 궁내청 서릉부를 비롯해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미국 의회도서관, 콜롬비아대와 버클리대의 동아시아도서관, 영국 런던 국립도서관, 프랑스 기메박물관, 파리 동양어학교 도서관 등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국내 고서는 대략 3만여 건. 이들 기관에 소장된 고서들의 목록을 정리해 <해외소장 전적조사 목록> 6권을 펴내기도 했다.

박 실장이 해외에 있는 전적 문화재 조사의 필요성을 처음 느낀 것은 1980년대 초다. 전시 때

문에 일본 출장을 가서 국내에 없는 귀중한 고서들이 일본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나서부터다. “조조 대장경만 해도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2~3백 권 정도가 발견됐지만 일본에는 국내에 없는 게 2천 권이 넘는다. 해외 조사를 하다 보면 국내에 없는 자료가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박 실장은 말한다.

국내없는 자료 수두룩...10년 뒤 매듭

에야 첫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마쳐야 하는 조사는 “먼지를 하도 마서 3일만 지나면 목에서 까만 가래가 나오고 몸은 파김치가 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귀국한 뒤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온 복사물과 국내 목록 등을 대조하여 정리하는 일 또한 몇 달을 끄는 지 난한 작업이다. 박 실장은 “다들 너무 힘들어 내년에는 하지 말자는 소리를 하

다가도 해가 바뀌면 ‘우리라도 안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하는 생각에 문예진흥원에 지원 신청서를 내곤 했다”며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지속적인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3분의 1정도 조사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10년 안에 마칠 수 있다는 계산도 이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박 실장은 “먼저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반환 차

원에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전적 조사는 국내에 없는 자료들을 발굴해 우리 문화의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실태 조사를 마치면 이를 공개해 누구나 연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nia.com

‘육조단경 허사 연구’ 등 학술연구지원과제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최근 학술연구지원 2002년 3차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불교 관련 연구과제로는 선도연구자지원 분야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문자 이동(異同) 연구’

(대전대 류보현 교수) ‘<육조단경> 허사(虛詞) 연구’ (송인성 박사, 선어록연구소), 협동연구과제에 ‘<신역대방광불화엄경의> 언어 연구’ (안양대 김애영 교수 외 1명)가 선정됐다.

정보사회 실천원리는 팔정도

김응철 교수, 불교교리이용 분석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정보사회를 설명해 보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대응’이란 제목의 시 아래 정기 포럼을 열어

법이고, 이상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분석 틀로 삼은 교리는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십여시(十如是)와 초기불교의 공·연기론, 그리고 팔정도다.

김 교수가 이날 내린 결론은 존재의 모습을 밝힌 열 가지 요소인 십여시는 정보사회의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관점을, 공과 연기론은 정보와 정보체계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이론적·철학적 기반을, 팔정도는 정보사회의 실천원리를 구체적으로

공·연기론, 정보체계 형성 철학적 기반

불교교리 억지 연결·현상왜곡 경계해야

은 현대불교사회문화원(원장 중원) 스님은 19일 ‘불교의 주요 교리로 분석한 정보사회의 이해’라는 주제로 8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응철(중앙승가대·사진)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이론이자 정신적 수행방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정보사회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교리를 경감부회하여 억지로 연결시키고 현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된 종교성 드러낼 때 예술적 향기 느낄 수 있어”

한국종교사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종교사학회(회장 류병덕)는 20일 ‘종교와 예술’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교를 인간 삶의 총체인 문화적 맥락에서 검토해 보자는 시도다.

다음은 드러낼 때 거기에서 예술적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예술이 참으로 예술다운 드러낼 때 종교적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교수(인하대)는 “예

종교·예술 모두 창조적인 자유 추구

정진홍 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기초 강연을 통해 “종교는 예술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당위를 지니고 있고, 예술은 종교적 감성을 그 기반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안고 있다”며 “종교가 참으로 종교

술의 창조성도 무아지경 속에서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면 둘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깝다”며 “둘 다 사람을 영적으로 끌어들이 창조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하는 점에서는 목표가 같다”고 밝혔다.



정행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불교공예 (2)

용과 봉황이 자아내는 향기

1992년 부여 능산리 고분 옆의 건물 유적지에서 한국공예사의 백미를 장식하는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처음에는 이 건물 터를 고분군 옆이라 제사터 정도로 추정했지만, 뒤에 이 건물터에서 청왕명(淸王銘) 사리가 출토됨으로써 절터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향로가 어떤 성격의 유물인지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처음의 추정과 같이 고분에 제사지내기 위한 향로였을까 아니면 불교의식에 사용된 향로였을까?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높이 64cm). 곡선의 흐름이 어느 한 곳의 막힘도 없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향로이다.

교적인 용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교와 도교의 도상이 공존한 것이 6세기 불교미술의 특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 향로에 대하여 제기하는 또 하나의 의문은 백제에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백제미술 하면 일반적으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 향로는 우아함을 넘어서 세련되고 힘찬 동감까지 표현되어 있다. 한껏 구부러지고 굽임없이 이어지는 곡선의 흐름, 불륨이 느껴지는 몸체의 위용 있는 트림, 그 기세에 동승한 구름의 힘찬 동감, 치밀한 공간의 연결, 부드럽게 연결된 산세, S자로 구부러진 봉황의 형상 등 어느 방향에서 보나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용으로부터 시작된 힘찬 아름다움 곡선의 형세는 봉황의 높이 세운 꼬리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금동대향로의 용트림 다리·연꽃 받침

세련되고 힘찬 백제인의 예술혼 담겨

이런 내용만 보면 이 향로가 고분의 제사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연꽃의 표현에 주목하면 불교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중국으로 옮겨가 이 향로의 제작시기와 비슷한 서위(西魏)시대(535~556)에 제작된 돈황 막고굴 249굴, 285굴을 살펴보자. 이들 굴은 불교사원으로서 벽면은 불교적 내용인데, 천장은 서왕모(西王母)와 동왕공(東王公)이 등장하고 천마(天馬)가 날고 있는 도교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불교미술과 도교미술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 금동대향로에 도교적인 요소가 보인다 하여 불

림 치밀하고 힘찬 조형 때문에 중국제 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향로는 분명히 ‘메이 드 인 백제’이다. 봉황이나 박산의 모습은 부여 외리 출토 문양전의 형상과 닮았고, 세련된 곡선미는 부소산성에 서 출토된 금동광배를 연상케 한다. 다만 그 동안 출토된 백제 유물이 세련되고 힘찬 곡선미가 대개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어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 백제인의 기상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이처럼 위대한 예술을 창출하는 민족임을 세상에 통쾌하게 보여준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